

## 2015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심사평

본 심사평은 각 분야별 심의위원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 1차(연극) 심사평

- 일시 : 2014.12.18(목), 10:00~18:00
- 장소 : 흥익대아트센터 프로젝트룸
- 심의위원 : 김선욱, 이병훈, 조형준(가나다 순)

“사회복지시설”지원에서는 극단의 예술성과 특히 수요계층에 어울릴만한 단체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단체가 비슷한 수준을 보일 때는 가급적이면 지역의 단체를 선택했다.

“농산어촌”지원에서도 역시 극단의 예술성과 공연의 성격이 평소에 연극을 접하지 못한 농산어촌 주민들이 즐겁게 관극을 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였다. 또한 기존의 평가가 좋은 단체는 가산점을 주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급적 선택에서 배제하였다.

“임대주택”지원에서는 극단과 수요처의 어울림이 잘 이루어진 경우를 선택의 최우선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교정시설”과 “군부대”지원에서도 단체의 공연성격과 교정시설 및 군부대의 특성과 어울리는 정도를 선택의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2015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1차(연극) 심의위원 일동

## 2015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심사평

본 심사평은 각 분야별 심의위원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 1차(무용) 심사평

- 일시 : 2014.12.18(목), 10:00~18:00
- 장소 : 홍익대아트센터 프로젝트룸
- 심의위원 : 김예림, 박성혜, 심정민(가나다 순)

2015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무용부문 지원 현황을 보면 총 81개로 집계된다. 유형별로는 사회복지시설 28개, 농산어촌 31개, 임대주택 2개, 교정시설 7개, 군부대 13개이다.

사업 유형에 따른 특성과 수용자 중심으로 해당 단체의 적합성을 우선시 고려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지원 단체의 예술적 역량과 수행능력, 이전 사업 활동의 이력과 내용 및 성과를 적극 검토하였다.

더불어 서울 단체에 편중되는 것을 적극 감안하여 지역과 장르의 고른 안배를 지향했다. 또한 해당 지역 및 수혜자 간의 소통, 호응도, 문화향수, 문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였다.

2015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1차(무용) 심의위원 일동

## 2015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심사평

본 심사평은 각 분야별 심의위원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 1차(다원예술/예술일반) 심사평

- 일시 : 2014.12.18(목), 10:00~18:00
- 장소 : 흥익대아트센터 프로젝트룸
- 심의위원 : 강윤주, 강익모, 조성주(가나다 순)

1. 심의 위원들은 작품의 질적 평가에도 자세한 살핌을 하였으나 우선 단체의 성격과 지원의도, 공연 수혜처와의 적합성과 효과에 가장 큰 심사의 주안점을 두었다.

2. 지난해 B등급이상의 공연은 신뢰를 가지고 우선 살펴보되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1차 심사에서 선정하였다.

3. 지원을 중복시키거나 내용이 부실한 곳, 지난해 평가에서 현저히 나쁜 점수를 받은 곳은 통과가 어렵다는데 의견 합의를 보았다.

4. 자격 미달이 될 만한 앞의 요인들을 제외한 후 후보군 중에서 장르나 형식의 다양성 안배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다.

5. 지원유형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하였으면 하였다. 특히 임대주택/교정시설/군부대 지원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로 지원하는 경우 많아 아쉬웠다.

2015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1차(다원예술/예술일반) 심의위원 일동

## 2015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심사평

본 심사평은 각 분야별 심의위원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 1차(음악) 심사평

- 일시 : 2014.12.19(금), 10:00~18:00
- 장소 : 흥익대아트센터 프로젝트룸
- 심의위원 : 박선희, 이나리메, 이민정(가나다 순)

2015년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은 총 327건의 신청건수 중 1차로 89건을 선정하게 되었다.

다섯 개의 유형별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선정을 원칙으로 참여 연주자의 예술성, 연주 레퍼토리의 적합성, 전체적인 음악 구성의 다양성 측면을 고려하여 심의하였다.

자료가 미비하거나 무성의한 기획은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최근 3년간의 평가 결과도 참조하였다.

2015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1차(음악) 심의위원 일동

## 2015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심사평

본 심사평은 각 분야별 심의위원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 1차(전통) 심사평

- 일시 : 2014.12.19(금), 10:00~18:00
- 장소 : 흥익대아트센터 프로젝트룸
- 심의위원 : 노복순, 이화동, 전지영(가나다 순)

2015년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심사는 단체의 사업 수행역량, 문화향수와 증진의 적합성, 계획의 타당성 및 작품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사회복지시설과 농산어촌에 많은 단체들이 지원했으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크지 않고 주로 연회 및 타악분야 단체가 많았다. 그 중 단체 역량과 프로그램 충실성과 적합성에 의해 보다 치열한 경쟁이 거처졌다.

임대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은 편이었고 전체적으로 단체 역량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 수준이 차별화 되었다.

교정시설과 군부대는 특화된 곳이어서 많은 단체가 지원하지는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경험 축적이 되어있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갖춘 단체를 선정했다.

2015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1차(전통) 심의위원 일동

## 2015년도 소의계층 문화순회사업 심사평

본 심사평은 각 분야별 심의위원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 2차 통합 심사평

- 일시 : 2014.12.22(월), 10:00~18:00
- 장소 : 홍익대 교육동 콘텐츠코리아랩 렉처룸2
- 심의위원 : 김진수, 이용관, 이은경, 정현욱, 최치언, 최해리, 한만주(가나다 순)

올해는 전체 응모 수가 전년도와 비슷한 가운데 문학과 시각, 다원예술과 예술일반의 지원 수는 적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포도 유사하였다. 지난해에 드러났던 문제들도 여전히 그대로였다. 즉, 깊은 고민 없이 늘 해왔던 프로그램을 재탕, 삼탕 식으로 재구성한 예가 적지 않았으며, 완성도 또한 미흡해 보이는 사업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예술과 음악, 무용부문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했다는 점도 그렇다. 그나마 이 사업이 벌어질 수혜처(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고려가 지난해보다는 전반적으로 나아 보인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아마 오래 걸리겠지만 여전히 수도권보다 여타 지역의 프로젝트가 기획력이나 완성도면에서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도 있다. 지역의 예술가나 기획자들의 분발을 다시금 촉구하는 바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심사기준이나 방식이 지난해와 유사할 수밖에 없었다. 즉, 심사위원들은 기획의 참신성과 완성도, 수혜처와의 부합성에 근접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려 했다. 지역적 형평성도 물론 고려 대상이었다. 하지만 말했듯이 기획력의 차이로 인하여 수도권보다 여타 지역의 프로젝트 선정 비율이 낮아진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기획은 근사하나 실행이 다소 어려워 보이거나 완성도가 미흡한 프로젝트는 당연히 다음 기회로 미루며 선정작을 좁혀나갔다. 문학과 시각예술의 경우 분량은 적었지만 예술과 대중의 만남을 진정성 있게 기획한 사업에 힘을 실어 주었고, 응모수가 많은 전통예술, 무용, 연극, 음악의 경우 작품의 질, 장소적합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극분야는 비교적 참신하고도 완성도 있는 기획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도 부기한다.

올해는 지난해 2단계 심사와 달리 3단계로 심화된 심사를 진행하였다. 총 1,300여건을 대상으로 한 1차 심사에서는 특히 이전 사업 수행 후 정산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수혜처에 대한 고려, 완성도 등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들을 걸러내고, 이렇게 추려진 400여건을 가지고 2차 심사를 진행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200여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내년도에는 더 참신하고 성과가 기대되는 좋은 사업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2015년 소의계층 문화순회사업 2차 통합 심의위원 일동

## 2015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심사평

본 심사평은 각 분야별 심의위원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 예산 심사평

- 일시 : 2014.12.29(월), 10:00~18:00
- 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실1
- 심의위원 : 김진수, 이용관, 이은경, 정현욱, 최치언, 최해리, 한만주(가나다 순)

2차 심사를 거쳐 올라온 200여건의 최종 선정 프로젝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예산심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전년도보다 지원 예산의 규모가 비슷한 점을 고려하여 각 프로그램당 예산도 유사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1회당 450만원 내외를 기본으로 하고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도록 했다.

지원항목은 출연료, 스태프 사례비, 여비(이동경비, 숙박비), 제반시설 임차료(조명, 음향, 무대 등), 홍보물 제작비, 수선비, 여행자보험료 등은 실비를 인정하였고 가급적 프로그램별 차등을 줄이려 했다. 이 프로그램이 공연장에서 유료관객을 대상으로 제대로 환경을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간이 무대를 세우는 방식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봉사적 의미를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급적 과도한 출연료나 인건비는 인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겠다.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자산 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나 단체운영경비(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 구입비), 준비비용(행사 답사비, 연습비), 임차료(연습실, 공연장, 보관창고 등), 업무추진비(식비 이외의 단순 진행비 등) 그리고 행정·홍보 인건비, 기획료, 안무료, 각색료와 사업과 무관한 간접경비 및 대행사 용역비 등은 행사의 성격상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점도 밝힌다. 각 프로젝트마다 경비 산출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대개 재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규모를 참작하였고 신규행사의 경우 재지원 행사의 예를 참조하였다. 앞으로 이런 예산 책정의 기준을 기획에 심분 반영하길 바란다.

2015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예산 심의위원 일동